

## “광주 도심에 AI·문화·에너지 기관 유치”

광주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남도와 공동 아닌 단독 추진

광주역 부지 등 모색 ... 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집중 부각

광주시가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에 대비해 알짜 공공기관 유치 작전에 돌  
입했다. 이번엔 전남도와 공동이 아닌, 단  
독 유치전에 나선다.

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사·도 상  
생 차원에서 전남도를 도와 한전 등을 나  
주시에 유치한 만큼 이번엔 광주 도심에  
AI(인공지능), 문화, 에너지, 자동차 산  
업 관련 기관 등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는 특히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시설, 생  
활 인프라 등을 갖춘 광역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문화·인간·교육의  
도시’ 광주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방침이  
다.

시는 또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수요자  
의 요구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  
광주역 부지 등 도심 한 가운데 배치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성  
공하기 위해선 이전 대상 기관의 입장이  
나 의견도 중요하다”면서 “지방 이전을 해  
야 한다면 노조 등에서 광주 등 광역 대도  
시를 희망하고, 입지도 도심 내를 선호하  
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행  
정수도 이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  
전 작전을 진행 중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  
작된 153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즌 2’가 10여년 만에 시작된 것이다. 2  
차 이전 대상은 122개 기관이며, 추가로  
공영방송이나 국책은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  
령에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  
가균형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은 조만간 세부계획을 보고 받은 뒤 검토  
를 거쳐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  
진다. 일각에선 당정이 올해 내에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  
온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급부상  
하면서 광주시도 지역특성에 맞는 유치기  
관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는 대승적 양보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

게 전남도와 공동 유치전에 나서는 모습  
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나주 빛가람혁신  
도시 내에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16  
개 기관을 유치하고, 전국 유일의 공동 혁  
신도시를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단  
독 유치전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전  
기관들이 광주 등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  
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물론 필요에 따라  
전남도와 공동 유치전을 펼칠 수도 있다  
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는 유치작전 1단계로, 혁신도시  
연구기획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추가 이  
전이 가능한 122개 공공기관을 7개 분야  
로 나눠 35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 에너지  
(3개), 정보통신(3개), 문화예술(9개),  
농생명(2개), 환경생태(6개), 과학기술  
(6개), 복지노동(6개)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35개 기관 중 10개 안팎의 알짜 기관  
을 집중 타깃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지  
고 있으며, 추후 정부발표에서 국책은행  
등이 이전 기관에 추가되는 상황에도 대  
비하고 있다.

광주시가 가장 눈 여겨 보고 있는 기관  
은 에너지 관련 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  
사(정규직원수 1813명, 자산규모 5조  
7000억원)와 한국공항공사(2227명, 4  
조5600억원) 등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논의 때 정  
와대를 대표해 참석한 강기정 전 정부수  
석의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치 대상으로 떠올  
랐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관련 대표 기관인  
한국데이터진흥원(48명, 168억원) 등도  
관심 대상이다. 문화 관련 이전 대상 기관  
으로는 한국문화재단(204명, 146억  
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138명, 18억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101명, 77억  
원) 등이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내부적으로 공공기  
관 유치 기관을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라  
면서 “광주의 미래발전 방향과 맞는 공공  
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필요하다면 전남도와도 상생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광주역 등 도심 내 ‘노른자위 땅’ 중 한 곳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정하  
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  
역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선별진료소는 지금 사투 중 ▶6면

최진석과 책 읽기 ‘어린왕자’ ▶16면

KIA 마운드 고민 해결해 준 대비 ▶18면

## 감염원 모르는 ‘n차 감염’ ‘조용한 전파’가 더 무섭다

광주 이틀새 11명 코로나 확진  
8명이 감염 경로 파악 안 돼

잠시 주춤했던 광주·전남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조용한 전파’가 시작된 것  
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3·6면〉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  
일 오후 6시 이후 7명이 진단검사에서 양  
성 판정을 받아 광주 382~388번 확진 번  
호를 받았다. 이미 공개된 3명의 확진자를  
포함하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10명의 확진  
자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이날 오후 6  
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1명(389번)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긴장  
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틀동안 새롭게  
발생한 11명 중 8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구에 사는 383·387·388번 확진자는  
모두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림침례교회 관  
련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후 증상  
이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은 감염원  
을 아예 찾지 못했거나, 아직 감염원을 파  
악하지 못한 기존 감염자에 의한 2~3차  
전파자다.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동구 학동에 거주하는 광주 382번 확진

자는 광주 28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감염경  
로가 불분명한 광주 285번 확진자에서 시  
작한 3차 감염 사례다. 북구 동림동에 거주  
하는 광주 384번 확진자 역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광주 37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 광산구 장덕동에 거주하는 광주  
385, 386번 확진자 부부도 광주 349번 확  
진자를 접촉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부부 역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광주 346번 접촉자에서 시작된 3차  
감염 사례다. 광주 386번 확진자가 지난  
1일 방문한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는 이날 하루 폐쇄됐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389번은 남구 진월동 거주자로, 감  
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광주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  
389명 중 감염원 불명은 20건이며, 무증  
상 확진도 195건에 이른다.

전남도 코로나 19 재확산 시점인 지난  
달 17일 이후 발생한 104명의 확진자 가  
운데 3명의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  
다. 전남 79번, 128번, 129번이다. 전남  
79번 확진자는 순천 거주 30대 여성으로  
지난달 23일 확진됐다. 60대 목포 택시기  
사인 전남 128번 확진자와 광양 거주 40  
대 확진자인 129번은 모두 지난달 28일  
확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장·교육감·정치권, 코로나19 극복 동참 호소

“시민 방역수칙 적극 준수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지역 국  
회의원·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일 오전 광  
주시청에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코  
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문  
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는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로 인한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민 모두  
가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야만 위  
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했  
다”며 “1980년 5월 보여준 광주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손 씻기, 사  
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검사의  
무 이해·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 준수, 역학  
조사 협조, 긴급 의료지원단 지원, 임대료  
인하 등을 당부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는 지금 경향해보  
지 못했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지만, 이  
보다 더 큰 위기도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  
다”며 “광주 구성원 모두가 한팀이 돼 코  
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고 당부했  
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강도 레티놀이 두가지  
발자 주름 등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